

# 13년간 이어온 독일의 최고 문학 프로그램 막 내려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의 <문학사중주> 종영

이정모 | 유로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 유럽지사장

1987년 여름, ZDF 방송국의 신사 양반 두 명이 FAZ 문예면 편집자인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 집으로 찾아갔다. 두 명의 신사가 라니츠키에게 용건을 꺼내기까지는 꽤 긴 시간과 몇 잔의 소주가 오갔다. 술기운에 이들은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이들은 물었다. “ZDF 방송을 위해 정규 문학방송을 진행해주시겠습니까?” 라니츠키는 단호했다. “아니오!” 하지만 두 신사는 대답을 못 들은 체했다. 라니츠키는 그들이 체념할 때까지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방송은 매번 적어도 한 시간, 더 좋으면 75분은 돼야 한다. 참가자는 나를 제외하고 세 명만 더 있으면 되고,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즉 토론 진행자이자 동시에 네 명의 토론자 중 한 사람의 기능이다.”

두 신사는 태연하게 알겠다고 하며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했다. 라니츠키는 이제 불필요한 대화를 끝내려면 특별히 심한 공격을 가해야 했다.

## 13년간 4백여권 작품 소개해

“방송 중에는 어떤 식의 영상이나 영화가 삽입돼서도 안되며, 독일 가곡이나 상송, 소설의 한 장면이라든지, 작가가 나와서 자기 작품을 낭독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좋게 설명한다든지 하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된다. 화면에는 오로지 네 사람만이 등장해야 하며 이들은 책을 이야

지난 1995년 <슈피겔>지에 표지모델로 나온 라니츠키는 귄터 그라스의 책을 찢는 모습으로 표현돼 있다. <문학사중주>에서 그는 귄터 그라스의 작품을 혹평한 바 있다.

기하고 예정대로 논쟁도 하게 될 것이다.”

텔레비전을 아는 사람은 짐작할 것이다. 이 두 신사가 얼마나 곤욕스러워 했을까를. 왜냐하면 TV 방송의 최고 계율은 언제나 비주얼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니츠키는 감히 이 법에 용감하게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라니츠키는 점잖은 두 신사가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상황은 달랐다. 두 신사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소주 한 잔을 더 들이키고 나지막이 단언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3년 동안 일반 시청자를 사로잡았던 문학비평 프로그램인 <문학사중주(Das Literarische Quartett)>가 탄생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와 <타게스 슈피겔>의 헬무트 카라젝, <디 차이트>의 지그리트 뢰플러(지난해에 이리스 라디쉬로 교체됨)라는 세명의 문학비평가가 고정 출연하고 매번 한 명의 다른 작가나 비평가가 함께 토론했다. 지난 13년간 77회 방송을 통해 작가 320명의 책 4백여권을 소개했다. 대략 4%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이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책이 방송 4주전에 공개되면 이 책은 방송 전에 이미 베스트셀러 목록



에 오른다(참고로 독일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인 ARD 방송의 저녁뉴스 <타게스샤우>의 시청률이 5% 정도다).

이 <문학사중주>가 지난 12월 14일 베를린의 대통령궁에서 생중계된 방송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마지막 프로그램에 앞서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이 직접 출연해 프로그램에 대한 소회를 밝혔으며 방송이 끝난 후 세시간에 걸쳐 마르셀 라이히-라니츠

키와 <문학사중주>에 대한 특집방송이 이어졌다. 독일서적상협회 디터 쇼르만이 “<문학사중주>는 독일의 문학이 TV에서도 성공적으로 소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문학사중주>의 제작자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문학을 즐겼던 것으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라며 프로

그램의 종영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좋은 문예 프로그램이 사라진다고 해서 모두가 섭섭해하는 것은 아니다. 비평의 교황 라니츠키로부터 문자 그대로 찢김을 당하는 수모를 겪은 적이 있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귄터 그라스는 “나는 벌써 오래 전부터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이 프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문학은 섬세한 독법을 요구한다. 내가 이 프로에서 보고 체험한 것은 천박화·상투화·진부화와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에게 《피아노 치는 여자》로 알려진 엘프리데 엘리네크 역시 “사람들이 척척 다뤄지고 처리돼 끝장나는 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니츠키는 말한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책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했죠. 소설 1백권 가운데 95권은 나빴고 네권은 약했으며 마지막 한권 정도가 아마도 좋았죠.” 그리고 테오도르 폰타네의 말을 덧붙인다. “하지만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말해야 하죠.” ■